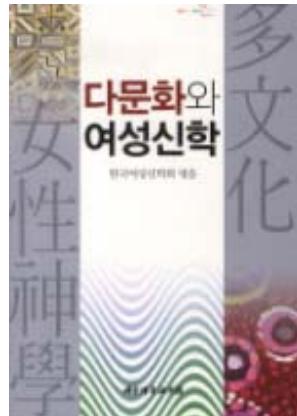


한국 여성신학회 3월 정기 세미나

신진학자 소개 및 논문발표

여성신학사상 7집 <다문화와 여성신학> 출판축하 모임



2009년 3월 21일 (토), 10:00-12:3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소예배당

한국여성신학회

정기세미나 일정

9:30-10:00 등록 및 환영

1부 학술발표 및 신진학자 소개 (사회: 김성희 박사, 이화여대)

10:00-10:30 논문발표 (최순양 박사, Drew Univ., 조직신학)

"트린 민하(Trinh T. Minh-Ha)의 "자기 비움(Undoing the I)"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10:30-10:50 질의 응답 및 토론

10:50-11:20 신진학자 소개(사회: 이경숙 여성신학회 회장)

김영혜 박사 (Graduate Theological Union, 구약학)

최영숙 박사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신약학)

조지윤 박사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신약학)

11:20-11:30 휴식

2부 여성신학사상 7집 발간 축하회 (사회: 조은하 박사, 목원대)

11:30-11:45 서평 (최인식 박사, 서울신대)

11:45-12:00 편집후기 (김호경 박사, 서울장신대)

알리는 말씀

1.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주차권(종일 주차권, 3000원)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백소영 서기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점심식사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친교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4. 4월 정기 학술발표회가 4월 18일 (토), 10:00-12:00, 감신대에서 있습니다. 발표는 유연희("여성의 선교: 미감리교회 여성선교회를 중심으로") 윤소정("여선교사들의 이야기: 테클라와 전도부인들") 박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 4월 정기 학술 발표회 후, 한국기독교학회 학술모임이 동일 장소에서 있습니다. 회원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6. 여성신학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비(연회비, 3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599301-01-149168 김성희(여성신학회)

1부
신진학자 논문발표

트린 민하의 "자기 비움(Undoing the I)"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최순양(드류대학교, 조직신학 Ph.D)

트린 민하의 "자기 비움(Undoing the I)"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최순양(드류대학교, 조직신학 Ph.D)

트린 민하(Trinh T. Minh-ha)는 베트남계 미국인 영화감독이자 영화과 교수이고 탈식민지학, 여성학, 인류학, 문화비평학에 조예가 깊다. 특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론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로 유명한 이론가이기도 하다. 그의 글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던지고 있는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기준의 이분법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이론(혹은 신학)에 대항하는 대안적 글쓰기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구분과 글쓰기

신학을 하는 사람들, 혹은 미국에서 유색인종 유학생으로 살아 본 사람들은 아마도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 보았을 것이다. “내 학문적인 주제가 미국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한국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 끝에 한국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서 한국(동양)신학, 한국적인 유교, 도교사상 혹은 아시아, 한국여성신학을 다루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이러한 민족성에 근거를 두고 한국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는 과정들이 과연 누구의 기준에 의해 다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 과정들의 기준이 되는 생각들은 대충 이러할 수 있다: 미국사람들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한국적인 것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해왔다. 미국사람들이 동양사상이나 동양여성신학 혹은 민족 신학을 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이, 그러므로, 더 권위와 진정성이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기독교와 사상이 이질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 사상을 다루는 것 보다 한국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사실 엄격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들 뒤에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적인 주제들을 다룬다 해도 미국사람이 다루는 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부족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세워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 신학교에서 동양인 교수들을 뽑을 때, 동양신학이나 타종교 연구 혹은 동양여성신학과 같이 특수화된 신학분야의 자리에 그들을 앉히는 경우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트린 민하는 이러한 경우를, 따라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타자화하는 서구남성중심사상(white-male-is-norm ideology) Trinh T. Minh-ha, *Woman Native Other*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6. 이라고 일컬고 이 속에서 유색인종은 늘 “백인남성”이 아닌 것, 그들과 반대되는 성격을 띠는 사람으로 분리된다고 지적한다. “제3세계” 혹은 “개발도상국” “가난한” 여성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동양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데, 그 속에서 작용하는 이분법은 미국이 제1세계이고 개발되고 부유한 나라라는 것이며, 유색인여성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백인(남성)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이고, 자존적인 것처럼 표상되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서구남성중심사상의 근거는, 트린 민하에 따르면 모든 것을 두 개의 반대되는 쌍으로 이해하는 이분법(two-by-two system of division)에 있다. Trinh T. Minh-ha, *Woman Native Other*, 39.

모든 글쓰기의 범주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규정하는 정체성의 범주들, 동양/서양, 남성/여성, 백인/유색인이 마치 그 둘 사이에 확연하고 엄격한 차이가 있는 듯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주들을 따라서 글을 쓴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이분법적으로 정리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범주 속에서만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린 민하는 “좋은 글과 나쁜 글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단어와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얼마나 그것에 자기를 맞추었느냐에 달려있다” Trinh T. Minh-ha, *Woman Native Other*, 17.고 설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준의 단어 쌍들과 글쓰기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한, 그 안에서 “여성적으로 글쓰기” “여성해방적으로 글쓰기”라는 것 혹은 “한국신학적으로 글쓰기” “해방 신학적으로 글쓰기”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아직도 “주인/억압자의 언어(the Master's language)”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논리에 따른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주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여성은 그의 힘과 논리의 지배아래서 벗어 날 수 없기 때문

이다. 트린 민하는 이러한 언어체계를 "다른 거울에 나타나는 표상만을 비추어내는 거울" 같다고 이야기 한다. Trinh T. Minh-ha, *Woman Native Other*, 22. 이 거울의 특징은 명확하지 않고 부유하는 대상을 또렷하고 명확한 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다.

주변인의 목소리는 항상 개인적(주관적)인 것이다,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항상 객관적이다. 남자는 생각하고, 여자는 느낀다. 백인남자는 이성과 논리--지식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이해하지만, 흑인 남성은 직관과 공감 --감각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이해한다. Trinh T. Minh-ha, *Woman Native Other*, 28.

이러한 고정관념들, 정해져 버린 편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고 구조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트린 민하의 대안적 글쓰기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구조, 글쓰기 구조의 현실을 인식하고 난 후에 그러한 고정관념과 이분법적인 논리구조를 허물 수(조금이라도) 있는 글쓰기 방법은 무엇인가?

트린 민하는 이분법적이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서구 남성중심적 언어를 해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름 지을 수 없음(unnaming) 모호성(opaque ness), 혹은 다중성(multiplicity)을 통해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주체성(subjectivity)은 트린 민하에게 있어 이분법적 이항대립으로 딱딱 떨어지도록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모호하며 역설적이고, 여러 가지 특성이 혼재(hybrid) 되어 있다.

유색인종(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깨뜨려져야 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타자와 분명하게 분리될 수 있는 확고히 정립된 자아라는 게 있다고 하는 착각이다. 철학이나 인류학 모든 인문학의 담론이 형성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획일적이고 균질적인 자아가 실제로 있다"라는 믿음이다. "서구"와 "합리성, 이성"이 늘 같이 가는 한 쌍처럼 여기는 것 또한 순수하고 본질적인 "Western male"이라는 실체가 정말 있다라는 주입된 생각 때문인 것이다. 트린 민하는 따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딱 떨어지고 이항대립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나, 너, 그/녀, 우리, 그들"이 표상하는 속성들은 계속해서 겹쳐지고 혼재한다(overlap)." 나/너, 우리/그들을 구분하는 규정들이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 지어 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언가를 규정짓고, 분리하고, 정의하려는 절절한 요구에 도 불구하고, 범주라고 하는 것들은 늘 틈새가 있기 마련이다(categories always leak)." Trinh T. Minh-ha, *Woman Native Other*, 94. 트린 민하에게 있어 정체성 (identity)은 따라서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향 받고 만들어 지는 것이며, 종결점이 아니라 재 출발점(not as the end point but rather the point of re-departure) Trinh T. Minh-ha, *When the Moon Waxes Red* (New York: Routledge Press, 1991), 113.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호함, 혼재함, 틈새를 드러내는 것이 트린 민하가 제시하는 non-white women의 대안적 담론(글쓰기와 영화 등)의 주요 기능이다. 여성적 글쓰기는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자신을 주인공처럼 여겨왔던 서구 남성주의적 주체에 단지 여성을 대신 갖다 놓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언어가 (남성이 규정지어 놓은 언어의 틀 안에서는) 더 이상 현실을 왜곡하지 않은 채 대변하는 현실 반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항상 누군가를 자신의 타자로 만들고 대상화했던 것이 이성주의적 사고의 주체였기 때문에 여성적 글쓰기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가려진 것, 억눌려 왔던 것"을 드러내는 글쓰기여야 한다.

여성주의적 의식 (feminist consciousness)이란 것은 트린 민하에 의하면, 따라서 남성적 지식과 이성을 담습하는 지식의 축적(accumulation of knowledge)이 아니라 정체성과 차이, 다름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a dialectical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identity and difference) Trinh T. Minh-ha, *When the Moon Waxes Red*, 113. 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트린 민하의 글(영화)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범주 안에서 파악 가능하다고 여기는 전지전능한 저자(감독)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주변환경이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대변자(representative)도 없다. 자연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상화되어서 그려지는 사람(글쓰기의 소재, 영화의 배우)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트린 민하의 대안적 담론은 기존의 글에서 표상되었던 주체(제국주의적이고 전지전능한 나)와 객체(대상화된 타자)의 분명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상대방을 타자화시키지 않는 담론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담론의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 형식(storytelling)을 들 수 있다.

여성들이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것들을 기억해 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속에서는 내 경험과 목소리들이 이리이러하니 나를 알아주라는 형식은 취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는 자신의 딸, 손녀의 삶의 경험을 이끌어내고 연결점을 만들어내게 해주기는 해도, 누가 누구에게 알려주고 주입하는 지식의 전달형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나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나와 동일시하거나 '내 것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storytelling은 바로 보편적이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삶과 경험의 그 깊이를 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과거의 사람들의 삶을 역사화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데이터화하는 지식적 정보와는 달라서, 그것이 사실이다 허구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 이성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 의해 허황된 "동화"니 "신화"니 하는 말들로 분리되어 버린 이 이야기형식은 이분법적 분류체계로 뭐라고 딱히 정의되어지진 않지만 심오하고 중요한 삶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야기는 따라서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주인공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누구나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소속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는 누구도 타자화되거나 대상화되지 않는다. 트린 민하의 "이론적 강속구(theoretical slam-dancing)"는 서구담론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던 서구남성주체를 무색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여태까지 가려지고, 억눌려왔던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힘은 마치 그녀가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형식처럼 누구나 들어와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야기는 하나의 선물처럼 돌고 돈다: 누구나 맛보기 위해 들어가 볼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소유할 수 없는 열려져 있는 선물같이 말이다. 다수성에 의존한 선물인 것이다. "The Story circulates like a gift: an empty gift which anybody can lay claim to by filling it to taste, yet can never truly possess. A gift built on multiplicity." Trinh T. Minh-ha, *Woman Native Other*, 2.

트린 민하가 강조하는 역설(paradox), 혼재(hybridity), 유동성(fluidity), 다수성(multiplicity) 등을 따라서,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지만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참된 열려짐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 트린 민하의 새로운 인식론은 모든 진리는 이분법적으로 혹은 권위체계적으로 나뉘어져야 한다는 서구 중심적 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혹은 계급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이러한 분류법에서 등한시 되어 왔던 것--역설적이고 섞여있고 파악 불가능하거나 불투명한 것들--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리고 그 저력을 들어냄으로써 다른 글쓰기, 다른 세계관, 그리고 다른 주체이해/ 자기이해를 트린 민하는 그녀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존의 인간과 세계, 그리고 종교 등이 서구 이성주의적이고 권위적인 표현방식에 의존해 왔다면, 트린 민하는 한 마디로 딱 잘라 정리 내리기 어려운, 정의 내려지기를 거부하는 심층적이고 신비적인 세계/종교/ 인간(여성)관 등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트린 민하의 "다름(difference)을 위한 싸움

트린 민하에 따르면, 따라서 다름(difference)이라는 것은 이항대립적 이분법에 의해 규정지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다. 트린 민하는 "다름을 위한 싸움(fighting for difference)"이라는 구절을 강조해 사용하면서 비서구인, 비백인, 비주류라는 말 등은 모두 서구인, 백인, 주류로 기능하는 중심부의 사람들을 규정하는 서술어의 부정적 측면으로 정의된 결과이며 이러한 서술어는 따라서 약자들을 규정하는 참된 다름(difference)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양여성, 타자화된 여성, 소외된 여성 등의 말을 사용하기 보다는 따라서, 트린 민하는 "다름을 위해 싸우는 여성"(women who fight for differences)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데, 이러한 여성들이 해야 할 의무는 바로 이것이다: 역설적이고 쉽게 정리되지 않는 서술방식을 사용함으로 주인(the Master)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그의 시선에 낚설고, 이질적인 그녀만의 다름(differences)을 확고히 한다. 이렇게 본 다름(difference)은 규정지어지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의미가 재해석 될 수 있고, 도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름의 관점은 트린 민하의 '형성중인 주체성'(subject-in-making)과 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인간을 이항대립적 서술어로 묘사해 온 철학, 인문학의 전통은 자기와 타자를 규정할 수 있는 순수하고 정통성 있는 표준화된 인간정체성이 있다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에서 근거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표준화되어 있는 그 인간정체성에 기준해서, 약자들은 타자의 부정적 측면을 대표하는 인간들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린 민하의 “다시 배우기(un-learning)”나 “알기를 거부함”(non-knowing)의 출발점은 자신에게 공기처럼 존재해 온 이러한 이항대립적 서술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트린 민하는 “다름을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이라는 것은 싸움의 종착점이라기 보다는 늘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다(Identity has become more a point of departure than an end point in the struggle)” Trinh T. Minha, *Framer Framed*(New York: Routledge Press, 1992), 140. 라고 이야기한다. 다름을 위해 싸우는 여성들이 해야 할 것은 따라서 주인(the Master)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간직해 온 자아/타자 관계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인의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다른 규칙들을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그가 자신이 만든 게임에서 자신이 패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The rules [to] be re-appropriated so that the Master be beaten at his own game.” Trinh T. Minha, *When the Moon Waxes Red*, 69.

트린 민하의 글을 예로 들자면 이러한 구절들을 들 수 있겠다:

Writing: an ongoing practice concerned not with inserting a "me" into language, but with creating an opening where the "me" disappears, while "I" endlessly come and go. Trinh T. Minha, *Woman Native Other*, 31.

트린 민하에게 있어 글쓰기라는 것은 기준의 틀에다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나’를 해체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해가고 다시 배우고 또 부정하고 하는 끊임없이 열려있는 작업이다. “I/i can be I or i, you and me both involved. We sometimes includes, other times excludes me... you may stand on the other side of the hill once in a while, but you may also be me, while remaining what you are and what i am not.” Trinh T. Minha, *Woman Native Other*, 92.

나, 너,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은 사실 없는 것이다. “우리”라는 말이 ‘나’를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배제시킬 때도 있는 것처럼 오늘의 나를 설명하는 언어들이 한 때는 ‘너’ 혹은 ‘그들’을 설명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트린 민하에게 있어 인간은 서로 같으면서도 다르며 다르면서도 같다. 특히 다를 땐, 결코 그 다름이 “00가 아닌 것, 혹은 ‘너’가 지니지 않은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고유성 속에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기준의 지배적인 언어체계를 배우기를 거부하는(un-learning) 사람들이 하는 일은, 따라서, 주인(the Master)이 규정한 글쓰기의 장르들을 고의적으로 혼동하여 사용하거나 단어나 구절의 의미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작업들이다. 그 대표적 뒤흔듦의 시도가 바로 “나”라고 규정지어 온 이름들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나”를 둘러싼 이름들에 의문을 갖고 그 진정성을 묻기 시작하면서, 과연 나와 확인하게 구분/동일화되어 온 다른 사람들은 과연 정말 그렇게 다르거나 같았던 것일까라는 회의 또한 자연스럽게 일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트린 민하의 혼들어놓기 전략(strategy of displacement)이다. 이 전략을 통해 트린 민하의 독자들은 주인의 언어 속에서 규정되어 온 모든 범주- 내부자/외부자(insider/outsider), 관찰자/피관찰자(observer/the observed)를 깨고, 외부자 혹은 피관찰자는 내부자, 관찰자가 자신의 규정과 범주들로 재단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과정은 트린 민하의 비유에 따르면 나선운동(spiraling movement)과 같아서 관찰자, 피관찰자 모두가 자신의 고착된 이름들에 머무는 게 아니라 표현될 수 없고, 유동적인 공백(blanks 혹은 void)을 겪는 것이다.

관찰자나 피관찰자나 어떤 자리에서는 서로 그 관계가 뒤바뀔 수도 있고,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개체성을 띄게 되며, 또 다른 형식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결코 명명되어진 그 이름에 일관되고 반복적 형식으로 들어맞을 수가 없다. 따라서 트린 민하는 “그 자신”(the Self)이라는 말보다는 “겹쳐진 자아”(interself)라는 말을 선호하는 데, 자아라는 이해 또한 결코 한 번에, 한 의미체계로 이해되고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영향 받고 달라지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트린 민하의 자기 비움(자기의 사라짐): 자신을 취소하기(Undoing the I)

트린 민하의 글쓰기나 영화 만들기에서 그녀가 가장 공을 들여서 작업하는 부분은 바로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무수한 자아들 속에 공존하는 혹은 자아들과 때로는 아무 상관없는 자아(the self within(without) selves)”라는 그녀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트린 민하에게 있어 자아라는 것은 자신/타자, 동양/서양, 여성/남성 이라는 이분법적 범주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있으면서 없는, 하나이면서 둘, 혹은 여럿 일 수 있는 역설과 혼재 속에서 더 가깝게 묘사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부정 혹은 취소하는 태도는 영화 “Naked Spaces”에서 영화에 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나타난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카메라로 담은 영화이긴 하지만, 트린 민하는 기존의 영화들처럼 그들의 삶을 정형화하거나 소개하려는 의도는 담고 있지 않다.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집에서 카메라맨이 밖으로 나오면 빛의 밝기가 너무 밝아서 사물은 까만 실루엣으로만 드러나고 또한 매우 밝은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빛의 밝기의 차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데, 트린 민하는 이러한 현상을 의도적으로 영화화 하였다. 이러한 장면들이 시사하는 바는 이렇다: 다른 사람에게로 다가갈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려는 그 욕망의 순간에 순간적 눈깜빡(momentary blind)을 경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의 가지고 있던 선입견, 선지식을 내려놓고 “알기를 거부함(a state of non-knowledge)”을 경험할 때만이 “익숙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unfamiliar or unknown)” 그 무엇이 다양화되고 새롭게 경험되기 때문이다. Trinh T. Minha, *Framer Framed*, 119.

이러한 트린 민하의 자기 부정과 non-knowledge는 신비주의자 엑카르트(Meister Eckhart)와 포레트(Marguerite Porete)가 신과의 합일 (unity)을 설명하는 과정과 닮아 있다. 이들에게서 궁극적 하느님(Godhead)은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규정한 모든 담론들과 서술어를 뒤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ness)이 되어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옷 입혀진 정체성과 이름들을 던져버리고 새롭게 자신을 이해할 때 인간의 언어로 규정지었던 하나님(God)이 아닌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느님(Godhead)을 만날 수 있다. 이 두 신비가에게 있어 전통적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워 진다는 것은 동시에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베긴회(The Beguines) 12세기 경(1170년과 1175년 사이)에 형성된 여성으로만 구성된 영성집단. 독일과 벨기에에서 형성되었다. 당시의 남성권력 중심의 교회로부터 제도적,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되었던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단순성과 자유(simplicity and freedom)를 주 목적으로 하는 영성을 추구하였고, 후에 대부분이 이단으로 몰려 박해와 고난을 겪게 된다. 주요한 사상을 형성한 신비주의자들로는 Mechthild of Magdeburg (1212?-1282?), Beatrice of Nazareth (1200?-1268), Hadewijch of Brabant, and Marguerite Porete (d. 1310) 를 들 수 있다.

신비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던 포레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창조된 정체성(createdness or Isness)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사회적, 교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등한시 여겨 왔던 여성성(who woman is)을 벗어나는 것 혹은 해체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신비스러운 하느님과 합일이 되는 영혼은 더 이상 교회가 혹은 사회가 규정지어주는 여성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규정을 넘나들면서 보다 더 심오한 본래의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무(nothingness)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포레트의 “자아의 무화(self-annihilation)”가 하느님과의 대면, 관계에 중점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트린 민하의 자기비움은 사회-정치적 의미를 더 확고하게 회복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포레트에게 있어 하느님(Godhead)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롭고 심충적인 존재라면 트린 민하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이분법적이고 권위적인 분류와 범주로는 표현될 수 없는 심오한 다름(differences)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트린 민하에게 있어 인간 정체성은 늘 만들어지고 있고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따라서 나/너, 그녀/그, 나/우리의 경계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했던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단순하게 그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분법적 경계 속에서 서로를 만나간다면, 그 대면은 늘 자아/타자, 관찰자/비관찰자, 인류학자/야만인의 관계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상대방은 늘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그 잣대의 대상이 될 뿐이다. 타자화와 대상화의 근거가 되어 왔던 그 분류체계를 회의하고 허물어서 마침내 참된 “non-knowledge”의 단계에 다다를 때, 사람과 사람이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법을 넘어서서 개체와 개체의 혼재됨, 연결됨에 중점을 둔 트린 민하의 인간 만남은 포레트가 인간의 언어를 부정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과 맥이 통한다고 필자는 해석하는 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모두-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든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든- 자기 자신의 부정, 자기가 이해하고 있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재고에 그 근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포레트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인간 영혼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self-annihilation)”은 모든 언어적 규범에서 자유로워짐이며 사회적, 교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트린 민하에게서는 언어적 규범에서 자유로워지는 ‘자기부정’의 경험이 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향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과의 만남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더욱 심화된 ‘자기부정’을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다.

도교와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트린 민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 하나하나를 대하는 것이 신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무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았고, 다만 트린 민하가 말하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려지는 자기 부정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적 인간론- 말할 수 없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비와 깊이의 존재-을 논문에서 다루었다. 엑카르트와 포레트가 두렵고 멀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비워나가고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트린 민하는 자기 자신을 둘러싼 그릇된 이름들, 또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분법적 잣대를 내려놓는 그 때 참된 사람과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나가는 말: 트린 민하에 대한 여성 신학적 재고

트린 민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재고, 혹은 자기 부정이 여성신학적으로 의미가 큰 이유는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되돌아보는 종교적 수행의 부분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틀, 명명법에 대한 해체(혹은 거부)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트린 민하의 자기 부정과 이미 부여되어 온(자신과 타자에게) 이름에 대한 해체는 또한 서구에서 바람직한 원형으로 여겨져 온 남성 정체성에 대조되어 그 반대의 쌍으로 규정되어 온 여성 정체성, 혹은 약자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게 한다.

이러한 재조명을 구체적으로 여성 신학의 어떤 면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트린 민하의 인간이해, 엄밀히 말하자면, non-unitary subject에 대한 이해는 여성은 이러 이러한 존재라고 규정짓고 어떠한 보편적인 말들로 설명하고자 하였던 기준의 여성 이해 앞에 붙은 이름들- 동양여성, 제3세계 여성, 억눌린 여성, 가난한 여성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한다. 여성신학이나 민중신학이 권력자나 기득권자들과 대립되는 존재로서의 민중, 억눌린 자, 여성들의 억압의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들을 어떤 보편적 언어들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상정해 왔었다면- 예를 들어, 민중신학에서 민중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하는 대표적 양상을 높 띠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나 한국 여성들은 한국의 전통종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종교적 문화의 담지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 등- 트린 민하의 인간이해는 이러한 이들이 과연 누구의 관점에 의해 정형화(stereo-typed)되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다시 타자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예리한 눈으로 따져 묻도록 하는 힘이 있다. ‘다름을 위해서 싸우는 약자(여성)(women who fight for difference)’의 다름 그리고 독특성은 사실 기득권적 서구 남성의 논리로는 표현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성과 다름을 기준의 이분법적 분류법 속에서 표현해 버린다면, 예를 들어 “가난한 제3세계 여성”이라는 이름을 여성신학에서 계속 사용한다면,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약자를 대변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들을 계속해서 기준의 틀 속에서 범주화하고 타자화하는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트린 민하의 non-unitary subject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게 되는 언어들과 명칭들에 대해 그 말이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기 위함인 지, 명명자가 분류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맞추어서 그들을 다시 정형화하는 것이 아닌지의 질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게 된다.

필자가 신학을 하면서, 특히 미국에서 공부할 때 텔식민주의와 여성신학을 함께 고민하면서 던졌던 질문은 ‘누가 누구의 이름을 짓고, 누가 누구를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텔식민주의 학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묻는 물음이 바로 ‘약자들을 위한 학문을 한다고 하는 지식인, 학자들이 그 사람들의 구체적 상황과 특수성, 독특성들을 학문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씨름하던 필자에게는 트린 민하가 제시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자기 비움’이 곧나를, 혹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던 언어와 지식체계의 해체로 이어진다는 사상이야말로 종교적 태도를 사회,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시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혜안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트린 민하의 자기 비움에 영향을 받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기독교적 인간론을 꿈꿔 보았다.

“그 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 . . 언제 병드시거나 갑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다. 그 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표준새번역, 마태25: 37-40)

트린 민하가 제시하고 있는 이분법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거부하는 자기 비움(non-binary and non-knowing state of emptiness)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설명할 수 없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위치의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비워진 마음으로 만날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은 곧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닮아 있게 되는 것이다.

신진학자 소개 1. 김영혜 박사

[자기 소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과 (B.A.)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M. Div.)

Graduate Theological Union (M.A. & Ph.D)

논문 제목: The Levitical Heptateuch and Phinehas the High Priest

관심연구분야

오경의 형성사 및 오경과 역사서의 관계

제2성전시대 연구

[학위논문 소개]

논문 제목: The Levitical Heptateuch and Phinehas the High Priest

크눌과 밀그롬의 저작은 최근의 성결법전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두 학자에 의하면 성결법전은 D 문서 이전 주전 8세기에 이미 현재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견해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에스라-느헤미야와 성결법전을 분석해 보면 에스라-느헤미야에 나타난 오경의 관련법들이 어떤 특정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결법전의 뒷부분 (레 23-26장)으로부터 인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에스라-느헤미야의 구절들은 성결법전에 나타난 구절과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오경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인용된 에스라-느헤미야의 구절들은 상당한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성결법전에 나타난 구절이 에스라-느헤미야의 해당구절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의 용어와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볼 때 성결법전의 최종화는 에스라-느헤미야보다 후대에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에스라-느헤미야의 형성 당시에도 오경은 아직 최종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성결법전(H)의 편집은 사경(크눌과 밀그롬에 의한 H의 편집범위)을 벗어나 7경 (창세기-사사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H 특유의 용어분포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7경의 최종화가 H에 의하여 상당히 후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7경에서 H는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하여 안식일, 잡흔, 성전세를 주요 주제로 삼고 전개되어진다. H의 대제사장 비느하스에 대한 묘사는 레위그룹, 특히 페르시아 시대의 성서저자들 (역대기, 에스라-느헤미야)에 의해 이해되어지는 레위인들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비느하스에 대한 이러한 특징적 묘사는 또 한번 H가 상당한 후대에 형성되었으며 레위 그룹이 7경의 최종화에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진학자 소개 2. 최영숙 박사

[자기 소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B.A)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M.A)

독일 마인츠 요한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에서
신학박사학위 (Dr.theol)

논문제목: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하다: 바울의 고난목록과 사도직 신학

(Denn wenn ich schwach bin, dann bin ich stark. Die Paulinischen
Peristasenkataloge

und ihre Apostolatstheologie)

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관심 연구 분야:

바울서신 (특히 고린도전후서)

신약의 여성들

주석 방법론

신약시대 배경사

[학위논문 소개]

Denn wenn ich schwach bin, dann bin ich stark. Die Paulinischen Peristasenkataloge und ihre Apostolatstheologie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하다: 바울의 고난목록과 사도직의 신학)

신약연구에서 예수의 고난에 대한 주제는 아주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반면, 바울의 고난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그가 경험한 고난을 말한다. 그는 매시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날마다 죽으며, 맹수와의 싸움에 직면하며(고전 15:30-32),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 살 희망마저 잃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후 1:8-10). 밖으로는 반대자와의 싸움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외부적 환경과 내면까지 고난 받고 있는 자신의 실존을 말한다(고후 7:5). 바울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초대 교회도 처음부터 고난의 현실에 직면한다(살전 3:4). 바울은 사도로서 당하는 수많은 자신의 고난을 일종의 카타로그 양식으로 열거하는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의 장르로써 자리매김하여 바울의 고난목록(Peristasenkatalog)이라고 부른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5번의 바울의 고난목록을 만날 수 있다: 고전 4장 6-13절, 고후 4장 7-15절, 6장 3-10절, 11장 21b-30절, 12장 9b-10.

고난목록은 구약의 전승과 헬레니즘의 스토아철학, 유대 묵시문학의 전승사적 배경을 가지며, 유사한 문학 양식을 취한다. 신약성서에서 고난목록(Peristasenkatalog)은 불트만이 1910년 그의 논문에서 바울의 고난목록과 헬레니즘의 전유학적 스토아철학 사이의 디아트리베 양식과 문체 형식을 비교 연구하면서부터, 신약전공용어로 정착하게 된다. 그 이후 몇몇 성서신학자들이 고난목록을 연구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헬레니즘의 스토아 양식을 비교 연구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언어와 주석적 방법을 통하여 고난목록에서 출발한 바울의 신학 형성 과정, 고난의 신학적 의미 등을 도출해 내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고난목록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수많은 고난경험을 하나의 카타로그 형식의 틀로 말하는가? 왜 주요 무대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인가? 고난의 목록들은 바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의 고난은 그의 신학의 틀에서 어떻게 발전되며, 어떻게 이해되는가?

바울은 고난목록에서 여러 전승사적 배경과 그것의 문학 양식을 취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교사역에서 경험하는 고난을 신학적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바울의 고난목록은 그의 신학의 주요 테마와 연관성을 갖는다. 즉, 그의 교회론, 세례와 성만찬, 기독론, 십자가신학과 부활신학, 그리고 그의 사도직에 관련한다. 그의 반대자와 그의 출신, 주의 말씀과 환상(ovptasi,ai)과 계시(avpokalu,yeij)도 고난목록의 주제로 등장한다. 한편으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하게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이 따른다. 바울에게서는 "고난 받는 사도"가 "고난 받는 그리스도"로 동일시되는 신비주의적 해석(알버트 슈바이찌)이 아니며, 역사적 예수의 그리스도론적 신현현의 선포성격 (귓계만)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구약이나 초기 유대주의의 유비처럼, 경건한자와 의로운 자와 함께 하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제로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바울에게서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peirasmoi)이나 교육(paideia)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비록 고난목록이 상황 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질지라도, 대부분의 고난목록이 특별히 고린도 편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고난목록이 지니는 의미는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교회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요약된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인지한다 (참조, 고전 1:1; 고후 1:1; 갈1:1; 살전 2:7). 교회의 설립자로서 또한 선교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dia,konos)로서 경험되는 수많은 바울의 고난목록은 예수의 제자 씨클에 들어있지 않았던 바울에게 예수가 추천한 일종의 추천서이며, 선교의 출발점이며, 신학의 출발점이다.

바울의 모든 논증관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함께, 교회와 함께 형성된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 받는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다. 고난목록에서 바울은 그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현재화로 이해하며, 그 안에서 예수의 제자인 사도와 구분되면서도, 그와 상응하는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변증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십자가신학과 부활신학을 변증하는 기능도 가진다. 고난목록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점에 직면하여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교회의 하나님됨을 위한 기능을 가진다. 그의 영적, 목회적, 선교적 차원을 위해 사용되는 신학의 총 집약이며, 지표이다. 바울의 고난목록은

놀라운 시적 카타로그 양식으로 형성되어 언어적, 수사학적, 문학적 예술작품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교현장에서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이 그의 신학으로 발전하여 표출되는 신학적 성찰의 초기형식이다. 바울은 왜 그의 고난을 시적 카타로그 양식으로 작성하는가? 그것은 이러한 시적 구조를 통하여 신학적으로 경험된 고난을 시처럼 암송하고, 하나의 고백 양식처럼 사용하고, 그것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고안된다. 고난목록에서 자서전적으로 형성된 신학을 만날 뿐만 아니라, 바울 신학의 많은 미래 중심적 테마가 조명된다.

신진학자 소개 3. 조지윤 박사

[자기 소개]

1993년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B.A.)를 졸업하고 2001년 동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M.)를 취득하였다.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Vrije Universiteit Amsterdam)의 성서 번역자 양성 과정을 연수하였다. 2008년 9월에 동 대학에서 논문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성경 번역에 있어서 공손과 청자 존대법)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이 학위 논문은 2009년 말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논문 시리즈(United Bible Societies Monograph Series)의 하나로 출간될 예정이다. 또 미국성서공회에서 발간할 <성경 번역 사전>(Dictionary of Bible Translation)의 집필자로, 5개의 소 논문이 출간될 예정이다.

1996년 2월 대한성서공회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번역실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존대법 연구 위원회”와 “인간 관심과 연구 위원회”的 연구 위원으로 봉직하고 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겸임 교수로 “신약성서와 성경 번역학”, “신약개론”, “그리스어 문법”, “원전 강독” 등의 강의를 하고 있다.

[학위 논문소개]

논문 제목: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성경 번역에 있어서 공손과 청자 존대법")

이 논문은 성경 번역에 있어서 청자 존대법 번역 문제를 다룬다.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언어에는 청자 존대법이 있으나 성서 원어인 히브리어와 아랍어, 그리스어에는 그러한 문법 형태가 없다. 그 중에서 우리말의 청자 존대법에 속하는 2인칭 대명사와 동사 종결접미사는 가장 복잡한 존대법에 속한다. 존대법이 없는 원천 본문(source text)을 존대법이 있는 대상 본문(target text)로 옮길 때마다 번역자들은 항상 적절한 존대어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청자 존대법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와의 관계, 대화 상황과 당시의 문화적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적절한 존대법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원천 본문의 함축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번역문의 문체를 파괴시키거나 문장을 비문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성경 번역자들이 존대법 번역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번역자들은 1960년대 이후 이 문제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을 제시하거나 그 기준들(criteria)을 제시한 연구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이 논문은 성서 번역에 대한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문화인류학적 언어학(anthropological linguistics)과 화용론적 언어학(pragmatic linguistics)을 통하여 존대법이 없는 언어에서 존대법 번역을 위한 기준들과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존대법 현상은 문법적 영역에 속하지만 그 사용은 담화 안에서 화용론적으로 관습화된다. 따라서 존대법 번역을 위해 공손 이론들로부터 끌어온 화용론적 통합 기준들은 원천 본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1970년대 초부터 연구되어온 공손 이론을 화자의 청자 존대법 평가를 위한 통합적 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기준들은, (1) 대화자간의 사회적 관계 -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 친숙도, (2) 대화 상황, (3) 사회적 활동에 대한 문화적 기대, (4) 대화자 간의 사회적 심리적 변수에 대한 번역자의 가정, 즉, 힘, 계급, 거리와 화자의 의도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틀을 기초로 하여 기준의 번역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소위 목적 이론이라고 불리는 스코포스 이론(skopos theory)을 도입하여 성서의 청자 존대법 번역을 위한 틀로 확장시킨다. 그 이론적 틀의 기준들은 (1) 독자, (2) 위원회, (3) 번역자, (4) 원천 본문, (5) 대상 본문이다. 이 틀은 기준의 번역 이론들이 그 이론적 시작점을 원천어로 보면서 대상어로 옮기는 도관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에 반면에, 청자 존대법 번역의 시작점을 원천어가 아니라 대상어로 보면서 통합 이론을 제시한다.

특히 청자 존대법 번역은 존대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독자들의 언어 능력과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독자들에 관한 정보를 번역자는 번역 위원회와 나누고 가장 적절한 번역 원칙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번역자는 화용론적 틀을 활용하여 성서 인물들의 대인관계와,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 성서 문화에 대하여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청자 존대법 번역을 위해서는 원천 본문의 언어 형식이나, 대상 본문과의 의미론적 혹은 기능적 상응보다는 언어의 사회언어학적이고 화용론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서 번역에 있어서 청자 존대는 공동체를 위하여 ‘성경’을 정의하고 그 공동체의 구체적 영성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이고 해석학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최초의 우리말 신약성서인 존 로스의 예수성교전서 (1887년)부터 가장 최근에 발간된 성경전서새번역 (2001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말 존대법을 번역할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산헤드린에서 진행된 예수의 재판”(막 14:58-65) 담화의 청자 존대법 현상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예수성교전서부터 성경전서 (소위 구역, 1911년), 개역한글판 (1961년), 개역개정판 (1998년)은 “너”와 “~느니라”체를 유지해왔으나, 현대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신약전서새번역 (1967년)부터 공동번역(개정판) (1977년/1999년), 표준새번역 (1993년), 새번역 (2001년)은 다양한 존대어로 번역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어 역본들에서 조차 청자 존대법 번역을 위한 이론적 틀이나 기준들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가 세운 기준들과 이론적 틀로 우리말 예배용 성경의 적절한 청자 존대법 번역을 제안한다.

만약 번역 목적이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라면, 이 담화의 모든 대화문은 “여러분”과 “~합니다”체나 혹은 대명사 생략과 함께 “~합니다”체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 문체가 실제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법정 참석자들 간에는 서로 존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원천 본문의 정보, 즉 예수의 고발자들의 음모, 예수를 향한 대제사장의 적개심, 예수의 힘 있는 선포, 박해자들에 의한 비극적 고난, 심문 과정에서의 긴장 등을 드러내기 어렵다. 반대로, 만약 번역 목적이 극단적인 직역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번역은 존대법이 없는 그리스어를 획일적인 등급(level)의 “너”와 “~하다”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또한 대화자 간의 적대적 관계와 긴장 상황을 멋밋하고 단조롭고 어색하게 만들어서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원천 본문의 메시지를 독자 공동체에 소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번역자는 적절한 청자 존대법으로 번역하여 대화자들 간의 힘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실제적인 번역문이 되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가장 적절하게 옮기는 청자 존대법은 산헤드린을 향한 중인의 거짓 중언(막 14:58)은 “~합니다”체, 거짓 중인들이 인용한 예수의 선포(14:58)는 “~하다”체, 예수를 향한 대제사장의 질문(14:60하, 61하)은 “당신”과 “~하오”체, 대제사장을 향한 예수의 답변과 산헤드린을 향한 선포(14:62) 또한 “당신”과 “~하오”체, 산헤드린을 향한 대제사장의 질문(14:63하-64상)은 “여러분”과 “~합니다”체, 예수를 향한 박해자들의 조롱(14:65중)은 “~하다”체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당신”과 “~하오”체는 법정에서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심문 과정의 긴장을 잘 전달하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가 산헤드린 앞에서 권위 있고 힘 있게 선포하는 표현으로 적절하다. 또 대제사장의 첫 번째 심문과 호응을 이루며 현재 재판장으로의 대제사장과, 미래의 심판자로서의 예수의 문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번역자가 한 문제를 선택 함으로서, 존대법이 없는 원천 본문과 존대법이 있는 대상 본문의 언어학적 차이 때문에 항상 잃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의 대화문을 가장 적절한 청자 존대법으로 옮겨야 하는 번역자들을 위해서는 이 글의 화용론적 기준들과 틀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의 계획]

2011년이 되면 최초의 우리말 성경인 <성경전역>가 완역되어 출판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면 그 많은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단 한 명의 여성 번역자나 개정자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전혜영 교수님(현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교수)이나 김연수 시인(당시 수녀)이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년) 같은 번역 프로젝트에 문장가로 참여한 적은 있었으나, 성서의 원문을 읽고 번역을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단 한 명의 여성신학자나 성서학자가 없었다. 보통 성경 번역 프로젝트는 그 당시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실제로,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학자들의 학문의 깊이가 더해지며 학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왜 그 동안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은 한 명도 없었을까? 보통 번역 위원들이나 개정위원들은 교단의 추천으로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데 교단에서 여성 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해서일 것이다. 신학교의 간판(?) 학자나 교단 관계가 원활한 학자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여성 학자들이 추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는 여성 학자들이 거의 없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또 성서학계에 분명 뛰어난 여성 성서학자들이 있었으나 10여 년이 넘는 번역 프로젝트에 집중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최근에 여성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대거 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여성 학자 층이 두터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 앞으로의 성경 번역프로젝트에는 반드시 여성 학자들이 참여해야 될 것이다. 새로운 번역이 될지 아니면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의 개정 프로젝트가 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된다면, 앞으로 차세대를 위한 성경 번역에는 반드시 여성 성서학자들이 번역자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가부장적인 번역을 담고 있는 우리말 성경 번역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원문을 읽다 보면 종종 원문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는데 부정적인 문장의 주어가 여성으로, 긍정적인 문장의 주어가 남성으로 교묘하게 바뀌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성경 번역은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서 경전으로 읽고 있는 책이므로 한국인들의 신앙과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다음 세대의 딸들이 성경을 읽다가 원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가부장적 사고에 물들지 않는 역할을 우리 시대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필자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이하 UBS)의 번역 자문 훈련 과정(Translations Consultant in training) 중에 있다. 약 2년간의 연수 과정(internship)을 마친 후에, UBS 번역 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자문을 맡기게 된다. 이 역할은 우리말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UBS 번역 자문이 확인한 성경 번역은 UBS가 인정하는 번역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말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 시대의 여성으로서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함께 할 여성 학자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기회를 주는 작은 역할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번역 관련 논문을 스스로도 집필할 뿐 아니라 여성학자들이 성경 번역에 관한 관심을 갖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자료를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번역 위원회 조성

준비를 위하여 교단 추천뿐 아니라 성경 번역 이론과 실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과의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를 해나갈 것이다.

또 여성을 위한 여성의 성경인 “여성 성경”(Woman's Bible) 번역 프로젝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번역을 하는 다양한 번역이 나오면서, 특히 Woman's Bible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번역에 여성 신학 관점의 주석을 붙이는 경우도 있으나 번역 자체를 달리하는 성경도 있다. 앞으로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이와 같은 성경이 꼭 나와야 한다고 한다. 이 성경은 당대의 독자들에게 여성으로서 성경을 읽는 시각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예배용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아직은 미약하고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준비해날 것이다. 언제나 부족한 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며 두서없이 앞으로의 비전을 꾀력해본다.